海外經濟情報 제2009-45호
2009. 6. 19.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차장 김진홍(☎5291)
과장 박창현(☎529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금융의 현황과 예상되는 변화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간접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미국, 유럽지역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시아권, 특히 중국이 유력한 국제금융 중심지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역내국간 금융협력 움직임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시아 금융에 미친 영향

◆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 충격을 받았으나 미국, 유럽지역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직접 충격 : 서브프라임 관련자산에의 exposure)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는 2007년 6월 Bear Stearns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로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표면화

□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파생된 각종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의 부실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아시아 전체의 exposure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개별국의 금융기관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

— 한국 7개은행의 최초 투자액은 6억 8,250만달러(2008.2.5일 금융감독원)

— 2007년말 기준 일본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 총 보유액은 약 134억달러(일본 금융청 집계치 환산)

— 중국은 약 102억달러*를 보유(China Daily, 2008.3.18)

* 중국공상은행 12.3억달러, 중국건설은행 10.6억달러, 중국은행 79.5억달러

— Fitch사 등이 집계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서브프라임관련 자산 보유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기타 아시아주요국의 서브프라임관련 보유자산

싱가포르	싱가포르 개발은행(8.5억달러), OCBC(4.3억달러), UOB(2.6억달러)의 3개 은행 합계 15.4억달러
태국	Bank Thai : 5,100만달러
홍콩	Bank of East Asia : CDO 6억달러
대만	국태금융 1억달러, 신광금융 1,070만달러
필리핀	전체 은행 투자 규모 : 1.8억달러

자료 : Fitch(2007.8.24), 로이터(2007.9.4) 등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체 손실중 50%는 미국에서, 40%는 유럽에서, 나머지 10% 정도는 아시아와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2008년 3월, 미국 재무부 차관보)

주요 기관이 추정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1)]

(억달러)

Pimco	Deutsche Bank	Bear Stearns	OECD
2,500	3,000～4,000	1,500～2,500	2,000～3,000

주: 1) 2007년 11월 전망 자료: Reuters 통신 등

□ 이처럼 파생상품의 exposure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역내 금융당국이 감독정책을 강화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했던 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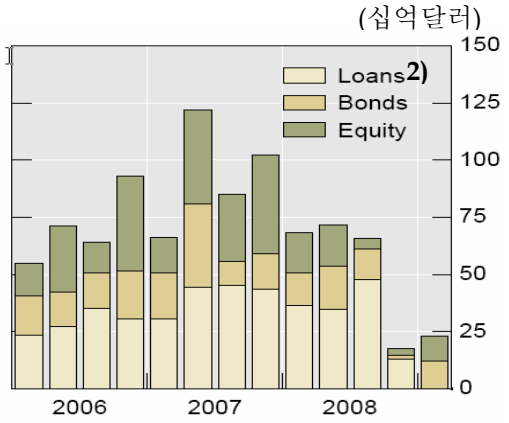
②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증권투자가 주종인 IB 업무에 상대적으로 초보적 수준이었던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간접 충격1 :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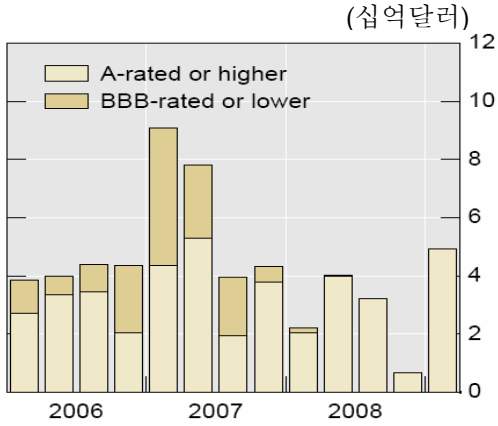
□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 및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으로 아시아계 금융기관들의 해외자금 조달에 애로 발생

○ 2008년 하반기중 해외자금 조달 규모가 급격히 축소

아시아주요국[1] 자금조달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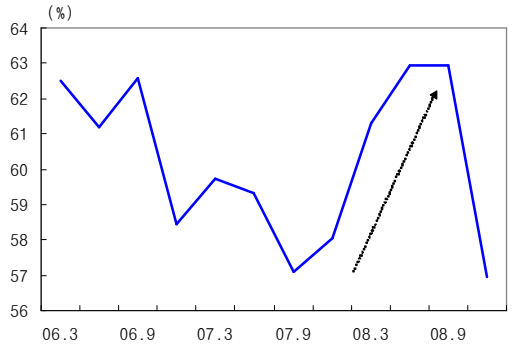
아시아[1]은행의 채권발행 추이



주: 1)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 2) 2009년 1·4분기는 미집계
자료: Risks to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BIS, 200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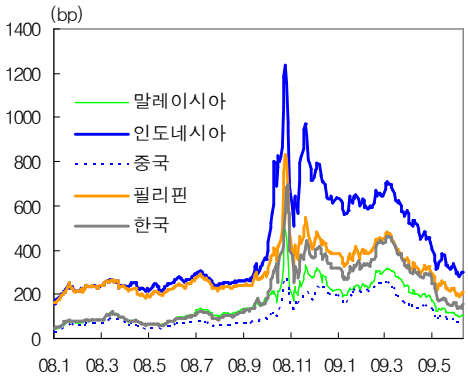
○ 자금조달 조건도 악화되어 차입기간이 단기화되고 가산금리도 폭등

단기차입 비중



자료: BIS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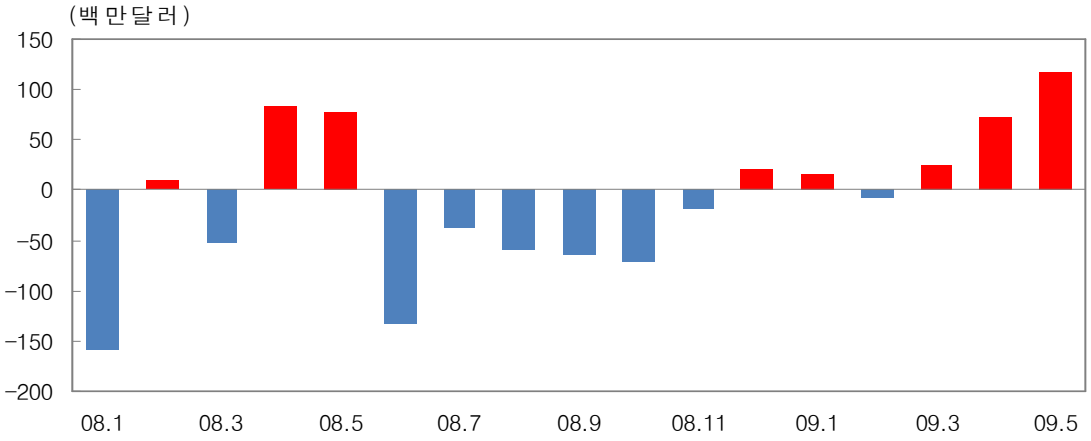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그러나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부실금융기관 처리 진전 등으로 금년 들어 해외차입여건이 개선

○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국의 경제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차입 ② CDS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 정상화 ③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증가 등의 긍정적 현상이 나타남

신흥시장국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출입



자료: EPFR

(간접 충격2 :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차입자들의 상환능력 감퇴로 부실자산 증가)

□ 경기 침체 등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규모는 대손충당금 등 금융기관 내부적립금과 정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

○ 아시아 신흥시장국 금융기관(중국 제외)의 예상 부실채권중 내부 적립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총자산의 2.6%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금융기관 내부유보가 미흡한 지역의 경우 초과 비율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유럽의 경우 초과 비율이 5%에 달할 전망

신흥국 예상 상각액 및 추가 필요 적립금

(10억달러, %)

지역	총자산	예상 상각액	자본 준비금	추가필요 적립금	추가 필요 적립금/총자산
아시아(중국 제외)	4,668	270	148	122	2.6
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3,959	345	203	142	3.6
(동유럽)	2,056	185	83	102	5.0
라틴 아메리카	2,957	181	144	37	1.3
합 계	11,584	796	495	301	2.6

자료: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IMF, 2009. 4)

○ 초과부분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보전되어야 하는데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정부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아 여력이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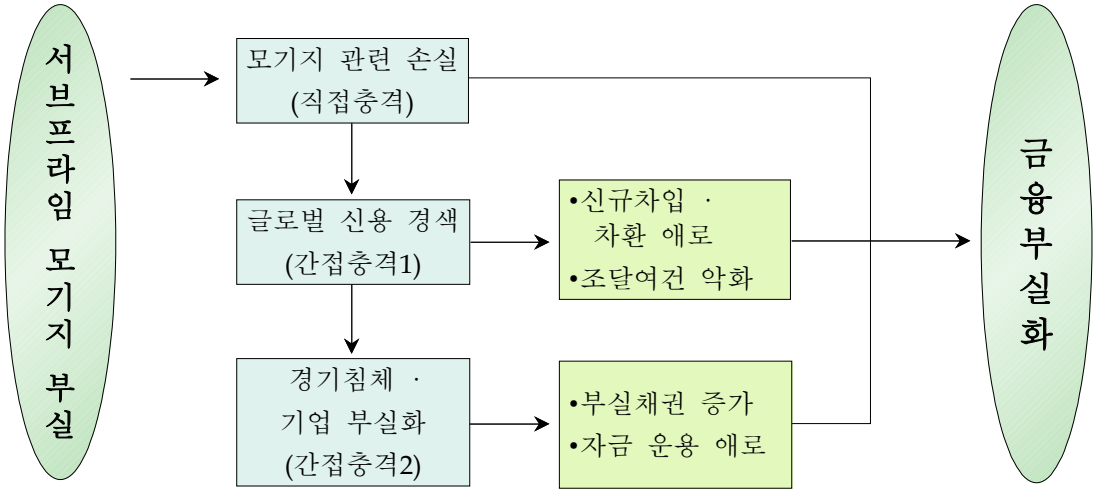
주요국 명목GDP대비 정부 채무잔액 비율

(2008년말 기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독일	미국
19.2	17.1	217.2	29.1	40.7	79.4	87.0

주: 1) 중국, 일본, 독일, 미국은 2009년 추정치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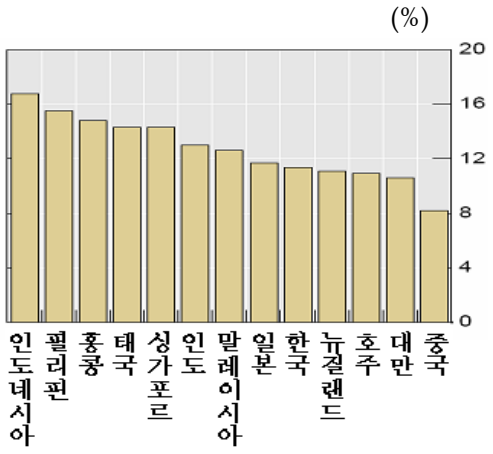
2. 아시아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평가

◆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에 따라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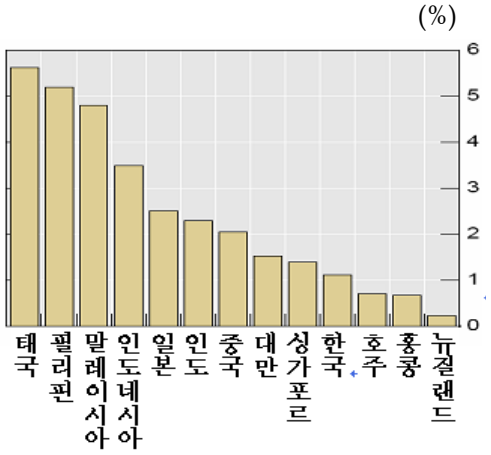
□ 아시아 주요국 금융기관은 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실여신 비율도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하면 4% 이하*

* 일본 금융청은 2002년 부실여신비율 가이드라인을 4%대로 제시한 바 있음

BIS 자기자본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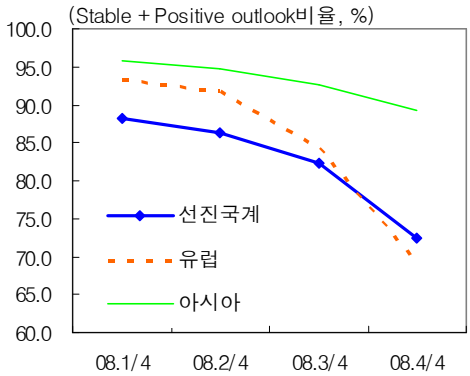
부실여신비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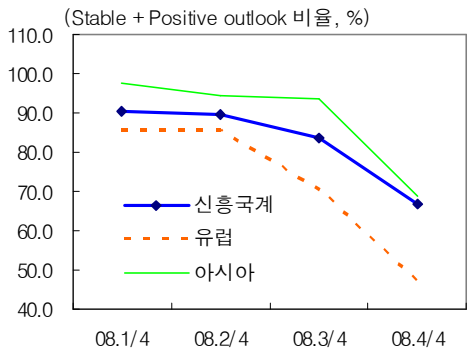
주: 1)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2) 고정이하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총여신 × 100
자료: BIS(2009.5.4)자료 인용

□ 신용등급의 하락폭도 아시아 금융기관이 가장 작은 편

선진국 Positive 이상 비율



신흥국 Positive 이상 비율



자료: FitchRatings(2009.2)

□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주요은행 총자산수익률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은 모습

주요국 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1)]

(%)

	중국[2)]	일본[3)]	대만	싱가포르[4)]	미국
2008년 1/4	0.39	0.73	0.09	0.28	0.68
2009년 1/4	0.29	-0.08	0.06	0.22	0.25

주 : 1) 분기기준(단, 일본은 회계연도말) 2)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의 합계 기준
3) 8대 대형은행(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UFJ, 주오미쓰이트러스트, 스미토모트러스트, 리소나, 신세이, 아오조라) 기준 4) DBS, OCBC, UOB의 합계 기준
자료 : 예금보험공사(미국), 대만중앙은행(대만), Fitch(일본), 각 은행 결산보고서(중국, 싱가포르)

○ 보스턴컨설팅그룹이 2009년 2월 발표한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중 최고의 수익성(세후 ROE 기준)을 거둔 Top 10 은행중 아시아계가 4개 포함*

* 중국공상은행이 33.3%로 1위, 홍콩의 한셍은행이 27.9%로 5위, 인도네시아의 Bank Rakyat Indonesia가 24.8%로 6위, 말레이시아의 Public Bank가 24.6%로 7위를 차지

Living with New Realities, creating value in banking 2009, Boston Consulting Group 2009.2

3. 향후 예상되는 변화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업무 확대 움직임)

□ 이번 위기과정에서 국제금융의 중심이었던 뉴욕 월가와 런던 시티의 국제금융기능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시아권, 특히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그동안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쏟아왔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금융기관 인수, IB 인력 흡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금년 1월 중국건설은행 회장은 M&A 등을 통해 해외 영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을 언급*

* The Banker, 'The future of banking', 2009.1.5.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중국 금융기관의 주요 해외 사업 현황

시기	금융기관	투자대상	투자내용
2007년 7월	개발은행	영국 바플레이스은행	지분 2.64%
8월	공상은행	마카오 성헝은행	지분 79.93%
9월	공상은행	홍콩 JEC투자공사	지분 40.0%
10월	공상은행	남아공 스탠더드뱅크	지분 20.0%(55억달러)
10월	민생은행	미국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지분 9.99%
2008년 7월	중국은행	스위스 헤리티지펀드매니지먼트	지분 30.0%
2009년 1월	초상은행	홍콩 윙룽은행	최종지분 100%(193억달러)
6월	투자공사	모건스탠리	지분 9.86%로 확대(12억달러)
6월	공상은행	캐나다 동아시아은행	지분 70%(7,300만달러)

자료: 언론보도내용 등

— 미국 예일대 Jeffrey Garten 경영대학원 교수는 Financial Times지 기고문*에서 상하이와 홍콩을 하나의 금융센터로 묶을 경우 상콩(Shangkong)은 뉴욕, 런던과 맞먹는 글로벌 금융센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

* “Amid economic rubble, Shangkong will rise”, FT 2009.5.10.

○ 최근 들어 중국이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적합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 중국은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로 IMF 특별인출권(SDR)을 제안(3/23)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위안화 결제 허용, 통화스왑 확대 등 위안화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중

□ 일본도 최근의 금융위기를 국제금융시장 진출의 호기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

* <참고 1>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일본 금융기관의 주요 해외 사업 현황 참조

○ 국제금융위기가 진행중이던 2008년 대형 은행중 미쓰이스미토모는 영국 바클레이즈(08.7월 1,060억엔)와 미국 모건스탠리(08.9월 9,000억엔)에, 미즈호금융그룹은 미국 메릴린치(08.1월 1,200억엔)에 출자

□ 그러나 국제금융 중심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음

○ 국제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망 등 발달된 인프라 외에도 영어 구사력, 금융전문인력,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는 단시일내에 달성할 수 없는 사안들임

* 문화개방성,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수,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병원수 등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도시권역을 평가한 결과 1~10위는 뉴욕, 런던 등 선진국이 차지하고 아시아신흥시장국에서는 한국 경인권이 11위, 중국 상하이권이 12위, 중국 베이징권이 13위를 차지(동아일보 2009. 6.16일자)

○ 또한 거래통화의 국제화가 상당부분 진전되어야 하는데 위안화 등 아시아권 통화의 국제화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은 상태

○ 따라서 중국 등은 상하이 등 금융도시의 인프라 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M&A등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강화)

□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시작된 역내국간 금융협력 움직임이 더욱 다양화되고 긴밀해질 것으로 보임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CMI*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던 아시아채권시장(ABMI) 활성화, 신용보증투자메커니즘(CGIM) 창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

* <참고2> CMI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현황 참조

** <참고3>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 참조

<참고 1>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일본 금융기관의 주요 해외 사업 현황

금융기관명	지 역	사업(매수, 출자, 대출 등) 내용	규모[1]	시기
<은행>				
미쓰비시도쿄UFJ	말레이시아	CIMB와 자본출자 이슬람금융 제휴	4.5%	07. 4월
	중국	미쓰비시도쿄UFJ은행(현지법인) 설립	100%	07. 7월
	중국	능탁기업관리자순(자회사) 설립	100%	07. 7월
	호주	B&B(투자은행)과 공동펀드에 출자	100	07.11월
	인도네시아	누산타라파라향간은행 매수		07.12월
	UAE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 대출한도설정	3,000	08. 7월
미쓰이스미토모	인도	인프라스트럭쳐 금융공사와 자본제휴		07. 9월
	베트남	베트남수출은행 15%출자 업무제휴	240	08. 3월
	인도	SMBC Capital India Private Limited설립	99.9%	08. 4월
	미국	월트디즈니 협조융자	540	08. 7월
	영국	바클레이즈 출자	1,060	08. 7월
	미국	유니온뱅크캘리포니아 지주회사 매수	3,700	08. 8월
	미국	모건스탠리 21% 출자	9,000	08. 9월
	한국	KB금융그룹 2%상한 출자와 업무제휴	200	08.10월
미즈호	한국	신한금융그룹 0.5%출자	100	06. 9월
	중국	서혜실업은행(자회사) 설립	100%	07. 6월
	중국	Mizuho Investment Consulting 설립	100%	07. 6월
	말레이시아	메이뱅크와 매출채권 인수 업무제휴		07.10월
	미국	메릴린치 출자	1,200	08. 1월
	인도	타타자동차그룹에 협조융자(2건)	4,000	08. 4월
	미국	IBM 협조융자	500	08. 6월
	스웨덴	볼보그룹 협조융자	1,100	08. 7월
<증권, 보험>				
동경해상홀딩스	영국	보험그룹 킬른 매수	1,061	08. 3월
미쓰비시UFJ증권	싱가포르	Kim Eng Holdings와 업무제휴		08. 4월
동경해상홀딩스	미국	필라델피아 콘소리테이티드 매수	4,987	08. 7월
제일생명보험	태국	대양 라이프(방콕) 출자	100	08. 7월
미쓰이스미토모해상	베트남	손해보험 자회사 설립	100%	08. 9월
노무라홀딩스	미국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유럽부문 매수	238	08. 9월
손해보험저팬	싱가포르	아시아지역총괄 자회사 설립		08. 9월
	홍콩	아시아금융홀딩스 주식 5% 출자	30	08.10월
아이오이손해보험	한국	롯데손해보험 9.9%출자	28	08.10월

주: 1) %표시는 출자비율, 기타 수치는 억엔

<참고 2>

CMI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현황[1)]

(2009. 4. 15. 현재)

	한 국	일 본	중 국
한 국	—	· 100억달러(2012.2.23)[2)] · 30억달러상당(2010.7.3)[3)]	· 40억달러 상당 (2010.6.23)
일 본	· 100억달러(2012.2.23)[2)] · 30억달러 상당 (2010.7.3)[3)]	—	· 30억달러 상당 (2010.9.20)
중 국	· 40억달러상당(2010.6.23)	· 30억달러 상당 (2010.9.20)	—
태 국	· 10억달러(2007.12.11)	· 60억달러(2010.11.8)[6)]	· 20억달러(2004.12.5) · 중국 지원 방식
말레이시아	· 15억달러(2012.1.6)	· 10억달러(2007.10.4)[4)] · 일본 지원 방식	· 15억달러(2005.10.8) · 중국 지원 방식
필 리 핀	· 20억달러(2010.10.16)	· 60억달러(2009.5.3)[6)]	· 20억달러상당(2010.4.9) · 중국 지원 방식
인도네시아	· 20억달러(2009.12.26)	· 120억달러(2011.8.30) · 일본 지원 방식	· 40억달러(2009.10.16) · 중국 지원 방식
싱 가 포 르		· 30억달러(2008.11.7)[7)]	
합 계	**· 185억달러 지원/ 235억 달러 수취 · 6개국**	**· 440억달러 지원/ 155억 달러 수취 · 7개국**	**· 165억달러 지원/ 70억 달러 수취 · 6개국**

주: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포함
2) 한국 → 일본은 50억달러
3) 원/엔 통화스왑, 2009.10.30까지는 일시적으로 20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
4) 미야자와플랜에 의한 기존의 통화스왑 25억달러 불포함
5) ASEAN국가간에는 20억달러 규모의 ASEAN통화스왑(ASA)이 발효중이며 별도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6) 필리핀 → 일본은 5억달러, 태국 → 일본은 30억달러
7) 싱가포르 → 일본은 10억달러
8) 한 · 중 · 일 3국의 대ASEAN4와의 스왑계약 규모는 410억달러 지원/100억달러 수취
9) ( )내는 계약만료일,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상호지원방식

<참고 3>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

시기	구상 협정	내용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	아시아각국이 협력하여 외환시장개입이나 일시적인 외화부족을 보전하는 아시아판 기금을 설치하려는 구상 - 자금규모 1,000억달러 정도로 한국, ASEAN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중국, 미국 등은 IMF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여 미실현
1997.11	마닐라 프레임워크 합의	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시아역내 경제의 감시를 강화, 무역 금융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을 긴밀화하여 IMF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기융자체제를 구축
2000.5	통화스왑협정 기본합의(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제2회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대외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경우에 외화를 상호융통하는 통화스왑협정을 맺는다는 방침 결정 ASEAN 5개국이 체결중인 통화스왑협정을 ASEAN10으로 확대하고 한·중·일이 이에 참가
2002.12	아시채권시장 육성이니셔티브(ABMI)	ASEAN+3 공식회의에서 '아시아채권시장육성이니셔티브'가 제안
2003.3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ABMI의 추진에 합의 6개 워킹그룹에서 구체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2003.6	아시아채권기금(ABF) 창설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가 '아시아채권기금' 창설하겠다고 발표
2007.5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멀티화(CMIM)	제10회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현행 CMI를 외화준비풀 방식으로 전환
2008.5		제11회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멀티화 개요에 합의. 자금규모는 적어도 800억달러
2009.2		제12회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의 자금규모를 1,200억달러로 증액. 역내경제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독립된 지역감시기관(서베일런스 유닛) 설립에 합의